



**2017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문인력(기획자) 해외문화예술동향 리서치
(2017년 12월, 스페인)**

2018.01.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17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문인력(기획자) 해외문화예술동향 리서치
2017년 12월 _주 스페인 한국문화원 [강민경]

□ 목차

No.	구분		내용	page
1	현지동향		〈라 나비데냐〉 행사 참관기	3
2			세비야 무용교육원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노조의 성명 “바닥과 냉방의 문제가 부상을 야기”	4
3	문화 예술 디렉 토리	기관 및 단체	스케르소 재단 / Fundacion SCHERZO	5
4		공간	카날극장 / Teatros del Canal	5
5		축제 및 행사	알마그로 국제고전연극제 / Festival Internacional de Teatro Clásico de Almagro	6
6			템포라다 알타 축제 / Temporada Alta	7

□ 현지동향

1. 현지 동향 <1>			
유형	축제/행사	장르	전체
관련링크	http://www.mataderomadrid.org/ficha/6026/la-navidena.-feria-internacional-de-las-culturas.html		

<라 나비데냐> 행사 참관기

마드리드시에서 주최하는 2017년 크리스마스 인터내셔널 마켓인 라 나비데냐(La Navideña)가 복합문화공간인 마타데로(Matadero)에서 12월 15일부터 12월 29일까지 개최되었다.

스페인 최대의 성탄절 행사 중 하나인 라 나비데냐는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전달하는 국제 행사로, 올해 3회를 맞이하여 스페인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관들의 적극적인 협력 아래 각국의 전통공연, 음악, 영화, 음식 등 대표적인 콘텐츠를 소개하는 300여개의 문화행사가 진행되었고, 각 행사에 방문한 관객은 총 7만 여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각국의 대사관들이 모여 홍보 활동을 펼치는 행사이다 보니, 이번 행사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부스가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12월 17일 오후에는 이스라엘 부스 앞에서 최근 예루살렘 문제와 관련한 현지 시민들의 시위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또한 그 동안 쉽게 접하지 못했던 남미와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콘텐츠를 접할 수 있었던 것도 흥미로웠는데, 나라별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전통음식과 의상, 소품들을 체험할 수 있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 역시 이번 행사에 참가하여 다가오는 평창올림픽과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선보였다. 최근 방탄소년단(BTS)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며, 이 곳 스페인에서도 K-pop에 대한 관심이 높아 문화원에서 주최한 <쇼케이스 K-pop> 행사 역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행사는 ‘케이팝 월드페스티벌 스페인 예선전’에서 수상한 4개 댄스 팀의 합동 공연이었는데, 추운 날씨에도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고, 모든 좌석이 매진된 상태에서 추가 입장을 기다리는 관람객들이 행사 종료까지 이어졌다. 12개 곡이 진행되는 동안 객석에서는 함께 춤을 추거나 응원 플래카드를 준비해오는 등 열띤 호응이 계속되었다.



(사진3 : 이스라엘 홍보 부스 앞 시위대 모습)



(사진4: 라나비데냐 행사를 즐기는 마드리드 시민들)



(사진5 : Showcase K-pop 공연 장면)



(사진6 : Showcase K-pop 공연을 즐기는 관객들)

1. 현지 동향 (2)			
유형	예술인복지	장르	댄스
관련링크	http://www.elmundo.es/andalucia/2017/12/12/5a2fbdabe5fdea5c2a8b4574.html http://www.conservatoriodanzasevilla.com/		

세비아 무용교육원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노조의 성명 “바닥과 냉방의 문제가 부상을 야기”

지난 12월 12일 노동조합 CGT는 국가가 세비아 무용교육원(Conservatorio de Danza de Sevilla)에 대해 ‘운명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하며, 법 규정에 따라 교육 여건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CGT에 따르면, 세비아무용원의 고르지 않고 틈이 생긴 바닥 때문에 교사와 학생들이 부상을 당하고 있으며, 교실은 방음이 되지 않아 옆 교실의 음악소리가 겹쳐지며 청각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오래된 시설과 높은 천장으로 인해 교실은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 부족으로 난방기를 제대로 켜지 못해 코트를 입고 수업을 하는 웃지 못할 장면이 연출되기도 하며, 수업 후에도 따뜻한 물이 없어 샤워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 교사들 연구 공간을 비롯하여 경사로나 승강기, 화장실 역시 부족하며, 버룩이나 쥐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한다.

세비아 무용교육원은 교육부가 운영하는 안달루시아 지역의 공립 무용전문학교로 1984년 세워졌고, 세비아 주와 후엘바 주의 8살부터 25살의 학생, 총 760명을 대상으로 클래식, 현대, 스페인, 플라멩코의 4가지 무용 교육을 하고 있다.

무용원은 1929년 이베로아메리카 박람회에서 아르헨티나관과 과테말라관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에 위치해 있다가 학생 수 증가로 피노 몬타노(Pino Montano)의 CEIP Hermanos Machado 건물의 공간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교육부는 네르비온(Nervión) 지역 4,000m²의 부지를 세비아 시에서 75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아 4백만 유로의 예산으로 새로운 무용원을 짓는데 국회가 동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러한 최소한의 규정에 맞지 않는 교육 여건들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학생 수 증가에도 운영비가 거의 늘지 않아, 노트북과 악기, 피아노 의자, 바, 바닥재 등 무용원이 가지고 있지 않은 시설을 구입하는데 예산이 활용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CGT는 극장이 교실로 활용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대기 공간 역시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법규에 따른 적절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CGT(Confederación General del Trabajo)는 약 200만 명의 근로자를 대표하고 있는 스페인의 노동총연맹으로, 직업 뿐 아니라 성별, 신앙, 인종, 국적, 언어, 정치적 사상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고, 근로자들 간의 상호 지원과 연대, 사회적, 경제적 이해의 방어를 목표로 하는 단체이다.



(사진1 : 세비아 무용교육원 홈페이지)

□ 문화예술 디렉토리

I. 문화예술 디렉토리 <기관 및 단체>

기관 및 단체

기관/단체명	스케르소 재단 / Fundacion SCHERZO		
유형	지원기관	장르	음악(클래식)
운영주체			
소재지	마드리드	설립년도	2001
기관현황			
홈페이지	http://www.fundacionscherzo.es/index.html		

스케르소 재단(LA FUNDACIÓN SCHERZO)은 피아노를 중심으로 클래식 음악의 중흥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문화적 사회적 차원에서 예술적 통합과 음악 관련한 지식을 알리기 위해 설립되었다. 1985년 잡지 SCHERZO를 창간하였고, 1996년 거장 연주자 시리즈를 시작하였지만, 현재의 재단은 2001년에 설립되었다.

재단의 활동은 Ciclo Grandes Intérpretes(거장 연주자 시리즈)와 Ciclo Jóvenes Intérpretes(청년 연주자 시리즈)의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분되는데, Ciclo Grandes Intérpretes는 동시대 거장들을 초청하여 마드리스 시민들에게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6년부터 시작하였으며 국립콘서트홀(National Music Auditorium)에서 진행된다. 2002년 시작된 Ciclo Jóvenes Intérpretes는 재능 있는 젊은 아티스트를 발굴하여 데뷔의 기회를 제공하며, 최근에는 스페인 작곡가 작품의 초연무대로 진행하고 있다. 젊은 연주자들의 공연은 카날극장에서 열린다.

2004년부터 재단이 발간하고 있는 “Musicalia”는 Josep Soler, Hans Werner Henze, Alfred Brendel, Steven Isserlis 등 최고의 예술가들을 소개하는 컬렉션으로 높은 지적 수준의 독자들을 만족시키고 있다.

2007년부터는 작곡가와 작가, 연주자, 연출가 등이 음악을 테마로 하는 강의로 진행하고 있다.



(스케르소 재단 거장 시리즈의 2017년 프로그램)



(스케르소 재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II. 문화예술 디렉토리 <공간>

공간

공간명	카날극장 / Teatros del Canal		
유형	공연장	장르	복합
운영주체	마드리드시		
소재지	마드리드	설립년도	2009
공간현황			
홈페이지	http://www.teatroscanal.com/		
카날극장은 마드리드 시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으로 2009년 2월 20일에 개관하였으며, 신작과 고전,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Juan Navarro Baldeweg가 설계한 극장 건물은 스페인비엔날레 건축상을 받은바 있으며, 최첨단 기술 장비들과 여러 형태의 공연에 유연하게 적용가능 한 무대 시설 등은 연극, 무용, 음악, 오페라, 플라멩코, 서커스 등 다양한 공연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마드리드의 가을-봄축제를 비롯하여 마드리드댄스페스티벌, 어린이극축제(Teatralia), 플라멩코축제(Suma Flamenca) 및 오페라축제(Opera de Hoy) 등 주요 페스티벌의 공연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연장은 레드룸, 그린룸, 블랙룸 3개의 극장과 카날댄스센터(Canal Dance Center, CDC)로 이루어져 있다.

공연장 중 가장 큰 레드룸은 843석으로 무대사이즈는 32 * 17 미터이고, 넓은 시야와 음향 시설을 자랑한다. 무대크기 20 * 10미터의 그린룸은 경우에 따라 여러 형태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일반 프로시니엄 형태로는 444석, 양면객석을 쓸 경우 605석, 4면 객석을 모두 쓸 경우 778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블랙룸은 무대 22* 8미터, 180석 규모의 소공연장이다.

현재 예술감독은 알렉스 리골라(Alex Rigola)와 나탈리아 알바레즈 시모(Natalia Álvarez Simó)가 함께 맡고 있으며, 그 중 나탈리아는 무용과 라틴아메리카 창작 공연 및 레드룸 중심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사진1 : 카날극장 외관)



(사진2 : 카날극장 홈페이지 메인화면)

III. 문화예술 디렉토리 <축제 및 행사>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알마그로 국제고전연극제 / Festival Internacional de Teatro Clásico de Almagro		
유형	축제	장르	연극
운영주체	알마그로국제연극제 재단		
개최시기	매해 7월 6일~30일	시작년도	1978
개최도시	알마그로		
참가규모	50개 극단 102회 공연(2017년 기준)		
홈페이지	http://festivaldealmagro.com/es/home/index.php		

알마그로 국제고전연극제는 1978년에 시작되어 올해 40회를 맞이한 스페인의 대표적인 연극제로 라만차(La Mancha) 지역의 알마그로라는 마을에서 매년 7월에 열린다.

스페인 연극의 황금시대를 기념하기 위해 시작된 이 연극제는, 동서양의 16~17세기를 배경으로 하는 고전 연극들을 되살리고 보존하고 재평가하고 현대화하여 보급하기 위한 축제로, 스페인 황금 시대뿐 아니라 엘리자베스 시대와 프랑스 신고전주의와 바로크, 일본의 노, 가부키 등 다양한 양식의 공연을 선보이며 매 해 6만 여명의 관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2015년에는 한국이 주 빈국으로 참여하여 여러 한국 공연이 스페인 관객들과 만나기도 하였다.

이 축제는 창작자, 교사, 연구자, 비평가, 연출가, 배우, 프로듀서, 무대 디자이너, 기자, 기술스태프 및 매니저 등 공연예술 전 영역의 사람들이 만나는 자리로, 연극비평가회의, 국제 블로거 회의, 국제 예술경영자회의 등이 함께 개최되기도 한다. 또한 새로운 관객 창출을 위해 국제어린이연극경

연대회와 젊은 예술인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주는 알마그로 OFF 등이 함께 진행된다.
1954년 발견된 코랄 드 코미디아(Corral de Comedias)는 스페인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바로크 양식의 공연장으로, 새로 보존된 이곳을 중심으로 시립극장과 박물관, 광장 및 교회와 병원건물을 개조한 공간 등 마을 전 지역에서 축제가 진행되며, 내년 축제부터는 40대 초반의 젊은 스페인 연출가인 Ignacio García가 예술감독으로 부임하였다.



(사진1 : 알마그로 축제 중 코랄드 코메디아 극장의 공연)



(사진2 : 알마그로 축제 홈페이지 메인화면)

* TIP : 2018년 행사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2월 4일까지 제안서를 보내보자. 단, 16~17세기 배경 작품으로, 최소 1시간 이상의 작품이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주소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http://festivaldealmagro.com/es/uploads/convocatorias/41_01bases-programacion-oficial-1.pdf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템포라다 알타 축제 / Temporada Alta		
유형	축제	장르	공연, 영화, 전시 등
운영주체	재단		
개최시기	매해 6월	시작년도	1992
개최도시	히로나, 살트		
참가규모			
홈페이지	http://www.temporada-alta.net/		

템포라다 알타(Temporada Alta) 축제는 매해 10월부터 12월까지 히로나와 살트 등 카탈루냐 지방 도시의 주요 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지난 20여 년간 국제무대에서 인정받는 작품들을 꾸준히 선보이고, 새로운 예술가들의 데뷔를 도우며, 스페인 최고의 예술축제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단골 연출가 피터브룩을 포함하여 안 페브르, 안젤리카 리델, 크리스탄 루파, 알렉스 리콜라, 클라우디오 톨카치 등 유명 연출가들의 작품이 무대에 올랐고, 연극뿐 아니라 무용, 서커스, 영화 등 다양한 수요를 가진 관객들을 위해 그 영역을 확장하며 다채로운 라인업들을 선보이고 있다.

올해는 10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총 97개의 공연이 무대에 올랐으며, 그 중에는 데클란 도넬란의 〈십이야〉, 알랭 플라텔 〈Out of Context〉, 로메오 카스텔루치 〈Ethica〉 등 해외 15개국, 18개의 해외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축제 사무국에서는 올해 작품 중 26개 프로덕션에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다.

올해 템포라다 알타 축제의 특징 중 하나는 사회 예술 교육 프로젝트와의 연계를 통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공연 예술을 소개하고자 하였던 것인데, 이는 축제의 모델을 계속해 가고 시민과 관객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시도였다.

올해 축제에는 총 52,753명의 관객이 다녀갔고, 객석점유율은 90.54%에 달하였다.

현재 예술감독은 연극프로듀서인 살바도르 수니에르(Salvador Sunyer)로 그는 현재 살트-히로나 공연예술센터장을 함께 맡고 있다.

축제의 전체 예산은 3,189,113유로(약 40억)이며, 이 중 협찬/후원금 30%외에 공연수입금

21%, 카탈루냐 정부 지원금 22%, 히로나 시 지원금 19% 및 지방의회 지원금 8%의 비중을 차지한다.



(사진1 : 템포라다 알타 홈페이지 메인화면)



(사진2 : 템포라다 알타 2017 포스터)